

관음사서 개최된 추모 위령재에 동참한 순례자들은 3만여 제주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주민 25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진 섯알오름 학살터에서 순례자들은 이들이 겪은 상처를 공유했다.



조계종 민추본은 3월 25~26 제주도에서 '제주4 · 3항쟁 75주기 평화순례'를 개최하고 평화와 인권의 귀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의 군사 요새화를 위해 만든 군사기지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에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평화순례에는 민추본 불교지도자 과정 수료생 등 성별과 나이를 초월한 30여 명이 동참했다.

제주4 · 3항쟁 현장서 평화 의미 되새기다

민추본, 제주4 · 3항쟁 75주기 맞아 평화순례 진행

3월 25~26일, 4 · 3항쟁 현장 찾아
위령재 봉행등 4 · 3 희생자들 추모
순례자들 "중요한 배움터" 한목소리
역사 반복 않도록 평화통일 염원도

제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해방 후 이념 대립으로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제주4 · 3항쟁이 올해 75주기를 맞은 가운데, 이념 갈등으로 학살된 당시 제주도민의 처절했던 삶이 스며진 역사 현장을 직접 순례하며 평화와 인권의 귀중함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이하 민추본)는 3월 25~26일, 1박 2일간 제주에서 제81차 월례강좌로 '제주4 · 3항쟁 75주기 평화순례'를 개최했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을 비롯한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 과정 수료생 등 성별과 나이를 초월한 30여 명이 이번 순례에 동참했다.

제주4 · 3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등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1948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 제주는 자주적인 통일 국가를 염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빨갱이의 섬'으로 낙인찍혔고 대량 학살과 인권유린 참극이 벌어졌다. 당시 목숨을 잃은 수가 제주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3만여 명 이상으로, 이는 6 · 25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남북 한국인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 제주도는 분단체제의 희생양이 돼 철저히 파괴됐고 이후 분단이라는 역사에 갇혀 4 · 3의 진실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민추본은 제주4 · 3항쟁 75주기를 앞두고, 희생당한 제주도민을 추모하고 1945년 분단 이후 이념 대립으로 얼룩진 현대사를 통해 평화와 통일,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고자 이번 제주 평화순례를 기획했다. 무엇보다 이번 순례는 4 · 3사건 유적지를 둘러보며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제주의 아픔을 살피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순례 첫날 이른 아침 제주도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먼저 제주4 · 3사건의 아픈 상처가 기록된 제주4 · 3평화공원과 기념관을 답사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제주4 · 3평화공원은 2000년에 4 · 3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4 · 3항쟁 희생자를 위령하고 4 · 3항쟁 역사를 기억하고자 조성됐다. 순례자들은 기념관 관람 후 영령들을 기리는 위령제단과 유해봉안실로 이동했다. 덕유 스님과 순례자들은 묵념과 반야심경 봉독으로 4 · 3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3만여 명의 희생자를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예불을 봉행했다.

유해봉안실 방명록에 '평화, 인권,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덕유 스님은 "4 · 3은 제주도민에게 가장 큰 고통의 역사"라면서 "평화와 통일, 인권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배움터를 살펴봄으로써 제주도를 비롯한 한반도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순례자들은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에서 봉행된 '제주4 · 3 추모 위령재'에도 동참했다.

관음사는 무장대들의 근거지인 어승생악과 가까워 4 · 3 당시 여러 고초를 겪었다. 한때 관음사 주변은 토벌대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장대 세력이 강했고 관음사 내에는 무장대들이 은신했던 유적이 산재해있다. 1949년, 토벌대에 의해 대웅전과 향적전 등 전각 8채가 전소됐고 16명 이상의 대중스님들이 총살과 고문으로 사망하는 고초를 겪었다.

이에 민추본은 제주 불교계의 4 · 3사건과 관련한 희생과 역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관음사에서 봉행하는 4 · 3추모위령재 참가를 이번 순례에 포함시켰다. 위령재에서는 순례자들을 대표해 덕유 스님이 헌화에 동참했다. 법회 후에는 제주4 · 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캠페인에 동참,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응원하기도 했다.

관음사 인근의 무장대 은신처에 올라 주변의 4 · 3유적지를 둘러보고 불교계의 고초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데 이어 무장대와 토벌대 간 4 · 28 평화협상을 무효화 한 오라리방화사건 현장인 오라리마을과 4 · 3항쟁 무장대 유적지가 있는 민오름을 탐방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튿날, 제주 생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곶자왈 도립공원을 찾아 탐방한 순례자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중일전쟁에 대비, 제주도를 군사 요새화하기 위해 만든 군사기지인 알뜨르 비행장과 격납고, 섯알오름 학살터를 답사했다.

섯알오름 학살터는 일제시기 건설된 일본군 탄약고가 있던 곳으로, 한국전쟁 직후 내려진 경찰의 '예비검속'에 걸려 연행됐던 주민 250여 명이 계엄군에 의해 2차례에 걸쳐 집단 학살된 것으로 전해진다.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최근 학살터와 추모비, 섯알오름 학살사건의 전개과정이 비석으로 만들어 설치됐고, 이를 추모하는 합동위령제도 매년 열리고 있다.

학살터를 살펴본 순례자들은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향을 올리고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제주도민의 영령을 위로하고 이들이 겪은 상처를 공유했다.

순례자들은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도가 실은 우리 현대사에서 평화와 통일, 인권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배움터임을 알게 된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미라 민추본 회원은 "일제강점기 군사 요새화가 돼야 했던 제주의 역사와 분단 이후 4 · 3항쟁의 역사 등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을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면서 "한반도에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 안희창 회원은 "민추본 회원으로서 순례를 통해 아픔의 역사를 알게 돼 감사하다"며 "한반도에서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움의 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출신인 이승룡 회원은 이번 평화순례를 마련한 민추본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주의 후손으로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알게된 시간이었다"는 이승룡 회원은 "4 · 3순례를 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면서 "이념과 사상으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추본은 평화와 통일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현장순례 코스를 계속해서 발굴, 많은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7회 망향의 동산 위안부 및 고혼천도 위령재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성덕종에서는 제7회 망향의 동산 위안부 및 고혼천도 위령재를 봉행합니다. 국립망향의 동산은 해외에 이주해 살면서 연고지가 없거나 조국에 묻히기를 원하는 100만 해외동포를 위한 국립묘원으로 1976년에 개설되어 현재 징용 피해자 및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이 영면에 들어 있습니다.
대한불교성덕종에서 매년 실시해 왔으며 벌써 7회째를 맞이하여 해외동포 영령들의 고혼천도 위령재를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셔서 법석을 빛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 시 2023년 4월 15일 (음, 윤 2월 25일) 토요일 오전10시~
장 소 국립 망향의 동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72-8) (041)557-7001
주 관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주 최 대한불교성덕종 도연 스님 010-8249-1259
후 원 보건복지부, 일붕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교계 각 단체

불기 2567(2023)년 4월
대한불교성덕종 총무원장 도연 합장